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열렬한 축하속에 제4차 전국로동 대회가 진행된 적통적인 시기에 맞는 것으로 하여 전승절의 경축분위기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각지의 인민군별사료들을 찾아 전승년대의 영웅전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

7월 27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타월한 명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희망》을 자랑하면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제2의 해방의 날이다. 이 날이 있어 우리 조국과 인민은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영웅조선, 영웅적인으로 온 세상에 존엄높이 되었으며 우리 혁명의 백승의 역사가 즐기자기 이어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배두산질세워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불리는 절의에 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시대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만대에 걸쳐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역사상 그 류례를 찾기 힘든 수령님의 영광으로 전승의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란기에 암살하려고 조선전쟁에 저들의 침략군대와 15개 추종국가군대들, 난조 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20여만명의 대병력을 들이밀었으며 가장 악랄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다.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배전백승의 강철의 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타월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풍처 영광으로서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발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판가름경사 전에 불러일으키셨으며 전쟁의 매시기, 매 순간마다 독창적인 작전적 구상을과 전법들을 내놓으시여 적들의 수적, 군사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 격파하시였다. 불비울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서 이 몽소 승리의 찬전도도 펼쳐 주시고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훨씬의 신심과 무직의 용맹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한 명도와 훈련적인 사람은 세계전쟁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군사적기적을 낳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걸출한 명장의 두리에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풍처 일렬한 애국심과 결사의 투쟁의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해 나갈 때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수실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을 시대를 열어놓은 바로 여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이때로부터 미제는 우리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뭇매를 맞고 참매만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전통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뿐만은 미제를 걸을마다 통쾌하게 죽처대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세계 주의연합체의 친임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전승의 쇠퇴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백두의 선군형장들을 높이 모시고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과의 종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을 떨쳐온 긍지높은 역사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신 희세의 정체군사가이시며 질세의 애국자이다. 일찌기 인민 군대에 대한 현지 시찰로 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리고 반제반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뛰어난 평군술과 비범한 지략에 의하여 주체적인 혁명무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루에블로》호사건과 패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적 풍들이 걸음을마다 격파분쇄되며 되었다. 지난 19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미핵대결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의 기적을 안아오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번 다시 구원해주신것은 우리 혁명의 전승사에 특기할 업적중의 업적이다.

선군조선의 전승의 역사와 전통은 오늘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군길에서 끊어지기 이어지고 있다.

백두산질세워인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끌어안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누리며 힘있게 떠나가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무역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김정은동지,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기들이 다져지게 되었다. 최대 열점지역의 섬초소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전군과

백두산총수에서 창조되고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높이 밟혀된 수령옹위정신을 명백으로 틀어쥐고 왔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될승의 백두산 대국의 결심은 결코 빛나지 않아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을 다져졌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끌어안은 빛내여나가려는 백두산 대국의 결심은 결코 빛나지 않아 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해체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한 철수를 안기려는 천만군민의 멀적의 의지

는 억척불변이다.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은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힘껏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을 다져낸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 조국처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배전백승의 기상을 떨쳐가는 사람은 없다. 전승의 역사와 전통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고귀한 재보이다.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은 천만군민을 수령결사옹위전에 힘있게 떠미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와 절대적인 충성은 우리의 전승의 역사와 전통에 판통되어 있는 근본적이다.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수령옹위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곧 우리에게 무리죽음을 안길수 있었다. 전후복구 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시기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기인 우리가 온갖 적대세력의 도전과 엄혹한 시련을 박차고 승리민을 떨쳐올수 있은것도 종래종시, 군사행의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조국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었고 무적의 힘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허리띠를 조이고 굽어 쓰려지면서도 세계적인 정치 풍파속에서도 추호의 훌륭림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선군혁명의 한길로 얹어 걸어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짚어보니 절감하고 있다. 총대에 높이 쓸면 이미 이룩한 승리가 한갓 역사로만 남게 된다는것이 세계사회주의운동사가 새겨주는 진리이다.

오늘 미제는 수십년간에 걸친 우리와의 대결에서 쓰러진 참폐민을 거듭해온 혁명의 교훈을 망각하고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적들이 방대한 무력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전쟁연습소동을 베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지만 우리의 배심은 들판에 놓은 듯을 입을을 확고히 확고히 확고하다. 총대에 높이 쓸면 이미 이룩한 승리가 한갓 역사로만 남게 된다는것이 세계사회주의운동사가 새겨주는 진리이다.

군대와 인민이 함께 하며 미제를 쳐물리친 950년대의 단결의 정신은 강성국가건설의 힘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지향과

의지로 굳게 결속되고 사상과 투쟁기풍

의 일치를 실현해나가는 군민대단결이

있기 위해 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 100년대는 민족사에 일제히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미래가 없는 강성번영의 전성기로 강화되었고 온 나라가 금성

철벽의 보루로 철옹같이 다져졌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끌어안은 빛내여나가려는 백두산 대국의 결심은 결코 빛나지 않아 것이다.

미제가 끌어내는 전쟁의 불집을 끄뜨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힘없이 끌어내여나가려는 철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을으로 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

밀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원쑤들의 피묻은

침략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긴 영웅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위대한 전승명절을 맞이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허영길동지,

및 반항공군, 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김원홍동지, 서홍찬동지, 노광철동지, 조

남진동지, 범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

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흙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

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농

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

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

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

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춘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

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춘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

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춘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

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

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춘장보존실, 읊음홀, 사적승용

차와 전동차, 배, 렘차보존실들을 돌아

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백두산총대

로 길이 빛내여 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제반미대결전

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뼈원이고 우리 민족

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기어

이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

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예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예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단장인 싸미 모합메드 레즈크 레즈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동포가 26일 꽃바구니를 전달하였다.

그는 우리 조국의 백승의 럭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숭고한 도덕의리로 조국수호전에

진정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선열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바구니를 친정하고 인사를 드리며 죄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와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2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태양의 궁전을 찾은 그들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고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을 펼쳐 이끌어 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꽂았습니다. 그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 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흔에 들어섰다.

그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 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흔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시여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굳건히 계승되고 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가 앞당겨지 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토심이 어려웠던 혼장보존 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를 돌아보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후대들에게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과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퍼줄기로 넘겨주어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전통을 빛내여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최후승리의 7.27을 암아오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대경사를 눈앞에 둔 뜻깊은 전승절 7.27을 계기로 또다시 평양에 모인 우리 전쟁로병들은 품종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역사에는 각이한 전쟁과 함께 수많은 로병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처럼 생의 맘달깐까지 당파 국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온 나라 인민의 친심어린 존경속에서 혁명에 필요한 세대, 영행하는 세대로 떠발들려우고 있는 로병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을 받았고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당의 사랑과 은정을 더더욱 가슴드겁게 절감하면서 우리들은 조국해방전쟁자로서 당파 혁명, 조국 후손들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하여야 할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보병총을 메고 남진의 길에 올랐던 10대의 애송이병사가 어느덧 어른이 되었다.

세월이 멀리 흘러가면서 가볍한 전화의 그늘에 빠지지 않고 밟았던 조국수호의 정신이 어찌 우리로병들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피어린 체험과 투쟁정신이 혁폭이나 및백만의 살보나도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시대가 우리에게 수사처지께 깨우쳐 주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빙도따라 수명결사용정신, 어국주의정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정신으로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만 있으면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의 승리자가 되고 백두의 대업을 기여이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새세대에게 뚜렷히 물려주라고 혁명이 바로 우리에게 절절히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70년대에 경의 드린다!》는 고귀한 친원로 전쟁로병들을 시대와 역사 앞에 깊은 우의 주시는 경의를 정희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정희 받았어, 서 멀리 라동강모래불과 남해기슭에 쓰러져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피침은 마지막당부와 통일의 날을 끝내 보지 못한채 떠나간 모든 로병들의 간곡한 목소리까지 합쳐 우리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밝워한 영웅적성정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루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끌어들이며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대결에 온 철천지원수들과 드디어 통증난을 하고 강성국가의 명령대로에 공화국기를 끌어아울러 할 마지막결전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 결전에서 기여이 이겨야만 승리의 7.27이 영원히 조선의 것으로 될수 있으며 우리 모두의 절절한 속원인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이 땅우에 거연히 일떠설수 있다.

지금 우리 귀前提是 남마다 해마다 더욱

요란스러워지는 분계선너머 총포소리와 구름속의 미 국비행기통음, 배령양의 검은 각방을 일으키는 침략선들의 발동소리가 65년전 6.25전쟁의 심상치 않던 승냥이 울음소리마냥 익숙하게 들려오고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판가리 격진에 뛰어든 우리의 용왕을 당해낸 적이 없었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품고 유헌으로 남아드는 우리의 돌격을 막아낸 무기가 없었다.

전후의 장장 수십년간 계속되었던 반제반미대결과 한반도의 행군에서 우리에게 승리할수 있은것도 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의 신념을 암고 천민군민이 불사신이 되어 수령결사옹위전을 벌렸기 때문이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을 하루빨리 결판내고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최후승리의 7.27을 암아오자!

역사에는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이 세계전쟁사의 기적이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때 제국주의『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15개 주총국가가 치악한 대우로 우리공화국은 일제가 파괴해버린 빙터우에서 겨우 5년동안 건국을 한 청소한 국가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도 정규무력으로 원자 2년밖에 안되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겼는가.

참전자의 목소리로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앞에 당당히 자신 있게 말한다.

사상의 힘, 정신력으로 우리는 싸워이겼다.

조국과 함께 승리를 향한 철학승의 승리와 함께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당파 수령의 두리에 굳게 통일군대와 인민의 배칠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이다.

만고의 빨찌영웅용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 데로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수령결사옹위의 종신들로 키웠고 이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만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결의의 각오가 남녀로소모두 불사신의 영웅군대, 영웅인민이 되게 해주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고 일편단심 김정은동지단을 굳게 믿고 따르자!

백두산대국의 운명이고 미래에는 승리인 금수산태극궁궐과 당 중앙위원회를 결사보위하는 전원간접의 성세가 되자!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불虧는 적의 회구도 가슴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어제기 전화의 용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당시 정지경지를 사생결단하여 무조건 풀까지 결사奉행하는 전원투사가 되라!

지금 우리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전우 리수부영웅이 남긴 시구절이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마냥 철철히 메아리치고 있다.

이것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없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것 역시 수령님을 떠나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령님은 곧 조국이시였고 승리하고 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판가리 격진에 뛰어든 우리의 용왕을 당해낸 적이 없었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품고 유헌으로 남아드는 우리의 돌격을 막아낸 무기가 없었다.

전후의 장장 수십년간 계속되었던 반제반미대결과 한반도의 행군에서 우리에게 승리할수 있은것도 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양의 신념을 암고 천민군민이 불사신이 되어 수령결사옹위전을 벌렸기 때문이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 신념의 웨침파물이 단 4문의 흐로 5만대적파 맞았던 월미도용사들, 수류탄을 암고 적땅길에 뛰어든 병사들, 사령장에도 웃으며 걸어나온 어국자들의 목소리로 새 세대들에게 절절히 호소한다.

조선의 운명이고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라!

해방후 5년의 10배가 넘는 60여년세월, 이 땅의 인민들이 파연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존엄있게 살고있는지 진정 뼈에 새겼다가 자기 수령을 하늘처럼 여기고 목숨바쳐 지끼라!

그때마다 밟고 사는 이 땅의 한줄한줄의 흙마다에 숨에여있는 용사들의 애국의 냄새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열렬하게 이땅을 사랑하라.

그들이 밟고 사는 이 땅의 한줄한줄의 흙마다에 숨에여있는 용사들의 애국의 냄새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열렬하게 이땅을 사랑하라!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여, 내 나라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마다에서 순간순간에 국으로 숨쉬고 애국으로 일하며 배우고 투쟁해나가자!

그들이 밟고 사는 이 땅의 한줄한줄의 흙마다에 숨에여있는 용사들의 애국의 냄새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열렬하게 이땅을 사랑하라.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제야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를 부서졌어야 되으로 풍기압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 소리 높이 웃애며 마지막 수류탄을 던져버렸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를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세대의 제일 귀중한 유산이다.

폭탄이 뛰고 탄알이 비발치는 가렬한 전장에서는 있어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일터와 학교, 마을들에서 풍포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어제날 우리 부모형제를 쏘이죽이려고 짓지 않았던 무기들이 오늘은 우리 공화국을 통제로 말려놓고 있다.

그 무슨 형제가 빙자되는 형제를 내놓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그에 전쟁이 아니란 말인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여, 내 나라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마다에서 순간순간에 국으로 숨쉬고 애국으로 일하며 배우고 투쟁해나가자!

그 무슨 《경제제재》를 고아데며 밭갈하자는 원주민들이 보란듯이 더 잘살자고 허리띠를 끌고 땅을 끓고 땅을 가꾸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그에 전쟁이 아니란 말인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여, 내 나라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마다에서 순간순간에 국으로 숨쉬고 애국으로 일하며 배우고 투쟁해나가자!

그 무언의 《경제제재》를 고아데며 밭갈하자는 원주민들이 보란듯이 더 잘살자고 허리띠를 끌고 땅을 끓고 땅을 가꾸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그에 전쟁이 아니란 말인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여, 내 나라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마다에서 순간순간에 국으로 숨쉬고 애국으로 일하며 배우고 투쟁해나가자!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을 그나마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민군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위대한 낸데의 승리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고 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맹장이시며 불세출의 전설적위인 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평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을 높여우는 미중유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자랑찬 전승의 날, 제2의 해방의 날을 암아 올수 있었다.

대회장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은 백두산천 출원인들을 높이 모시고 반제투쟁의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며 세기와 세대를 이어 선군 조선의 자랑찬 전승의 역사와 빛내여온 승리자들의 궁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 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기발개 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 주제 『승리』 상량열에는 조선인민군 유크군, 대군, 항공 및 만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대회에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영웅, 접견자들, 제대군인, 인민군후방 가족, 원군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세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래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패법기동지, 김평해동지, 모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판,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쟁로병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7. 27행진곡』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인 류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령도사와

선군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백전백

승의 떡사와 전통을 끈건히 이어나감으로

써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루

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기상이 차넘치

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

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승의 업적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인민무력부장인 류군대장 박영식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궁지와 최후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에 넘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치른 1945년 7월 27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지켜주고 담보해 준 영원한 전승절입니다.

미제의 무력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한 승리의 7. 27이 있어 우리 조국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은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습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제 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파ぱ하고 벌려나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로 동적위군, 블은 청년군위대 대원들, 전체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의 반제투쟁력사는 때 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가장 강고한 조건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창조하고 데를 이어 계승하여온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성스러운 로정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루어한 것입니다.

시대는 멀리 전진하고 력사적환경은 탈바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승의 업적은 반제자주시대의 불멸의 위훈으로 더욱 더욱 찬연한 빛을 뿐리고 있습니다.

항일혁명전쟁의 승리에 이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반민족결전에서 배전백승을 펼쳤습니다.

항일혁명전쟁의 승리에 이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반민족결전에서 배전백승을 펼쳤습니다.

조국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전법으로 직들

을 통과하게 타승한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을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와 『무기민동론』도 정치사상, 전략전술 우세로 타승할 수 있는 힘을 보였습니다.

조직으로 발전시키신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에 의하여 미제의 불악적인 공세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악명높은 『상승사단』들이 피멸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회의 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서사시로 전승영도사를 수놓으시였습니다.

서울과 수안보를 비롯한 전전장의 전사들을 찾아 5만 1,200여리의

위험험한 화선강행군길을 헤쳐가며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뜨거운 사랑과 익음으로 인민군 전사들과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리워 유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 불후의 혈신과 고로에 의해

전쟁승리의 전환적국면들이 열리었습니다.

동서고금의 전쟁사에 없는 독창적인 군사전략 전술과 전법,

탁월한 명군술로 전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미제의 살인장군들과 제노바 하는 제국주의군사가들을 짜낸 수준으로 군사작전들을 여지없이

이겨파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불세출의 전설적 영웅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의 전기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도덕적 우월성에 있다는 주체적관점으로 부터 출발하여 당과 군대, 인민정

권을 강화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으며 군인

과 당원 그리고 전쟁영웅들이 전쟁의

핵심으로 만들었으며 한때 중대

역량으로 5만의 대적과 맞서 싸운

땅과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덕으로 해방된 조국에서 땅과 공원의 주제를 김일성동지의 령도에 되어 차운으로 참된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끝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였으며 우리 시대 반제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믿음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탄생마다 얹혀같이 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조국의 풍한포기, 나루한그루도 살풀이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피리써 펴워진 조국의 운명을 생신존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구원하고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은 싸우는 우리 인민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후 60여년 동안 미제와 정면으로 맞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벌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호전쟁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이었습니다.

나타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창조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더없이 키운 사상정신적자리이고 우리 시대 반제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믿음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탄생마다 얹혀같이 자리잡은 신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보적인 전적을 보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후 60여년 동안 미제와 정면으로 맞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벌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호전쟁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태양인족의 찬란한 미래가 되어 척척이자리잡은 신념입니다.

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승의 업적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4 면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 선군령도 업적을 굳건히 고수하시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위한 승리와 위훈의 네대로 빛내여나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대업을 선군의 총대로 끌까지 완성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군인대 중증심의 군진설사상과 견학전술, 명활하고 기묘한 전법을 군진설과 군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였습니다.

최대 업점지역인 판문점과 까칠봉초소, 섬방어대들에서도 승리의 불멸의 영광으로 힘차게 펼쳐나가시며 전군을 품고 군대와 인민의 불모지로 끌어들여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무비의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울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마련하여 주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수호의지는 백해해지고 훌승의 신심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한분의 배두산장군이 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반미대결전을 전두지휘하시기에 『유일초 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겨울마다 통쾌하게 죽처하는 조선의 사랑스러운 승리전통과 뛰어난 능력을 막고 누아니기만 하는 미국의 수치스러운 폐단을 통쾌하게 헐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암아오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세계 전쟁사에는 자주와 정의를 위한 수많은 혁명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과 같이

필승불패의 전통과 력사를 가지고 있는 궁지높은 군대와 인민은 없습

니다.

우리는 승리만을 떨치는 영광스러운 전통의 계승자가 된 크나큰 궁지

를 간직하고 선군혁명승리의 민족보

검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

승업적, 선군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자기 최고사령관

을 위하여 한목숨비쳐 싸우는 결사

용위의 전통이 전군에 꽂 차넘치게

하며 오종환7현대청호평원운동과 근

위부대 운동을 힘 있게 벌려 군력강화

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림없는 의지를 간직한 김정은시대의 신념의 강자, 견결한 조국수호자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끝나지 않고 후손만대에 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 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새로 일떠선 신천박물관 개관식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신천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새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의 신념파 외지, 혁명한 영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신천박물관이 개관됨으로써 계급교양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신천박물관 개관식이 26일에 진행되었다.

개관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물을 험하게 편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미제를 물어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훌륭한 피값을 친백배로 받아내자!》 등의 구호들로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렘칠성

조선인민군 특공중장, 판계부문 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과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 창작가들, 신천박물관 종업원들, 신천군안의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사백어머니묘와 배들어린이묘에 꽃다발들을 전정하고 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최봉해동지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미제를 타승한 전승절을 계기로 신천박물관이 새로 일떠선것은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반제반미

계급투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혁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훌륭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의 힘있는 파시로 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신천당에서 짐승도 낯을 뿐이 야수적인 방법으로 3만 5 000여명의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

쟁의 포성이 몇은지 얼마 안되는 주제 42(1953)년 8월 신천군을 찾으시고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을 세상에 고발하는 박물관을 일마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을 두차례나 찾으시고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답게 잘 꾸며며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더우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신천박물관을 찾으시고 고기 가을을 떠나 살수 없는 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인민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승리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때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물관의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와 형성안으로부터 미술작

품창작과 내부전시, 구호와 안내 표지판을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었을뿐 아니라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 있는 인민 군대에 건설을 맡겨주시었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물어주시었다.

신천박물관은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을 폭로단죄하는 혁사의 고발장이며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전백배로 기어이 복수하고 아랑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적개심의 상징이다.

원한의 땅나무들에 새로 일떠선 박물관과 새롭게 꾸려진 사백어머니묘와 백들어린이묘, 애국자묘, 혁약장고와 전 신천군당방공호, 대형 부각상과 애의조각상, 복수결의 모임터 등에서 참관자들은 신천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 애말 계급의 깊달, 복수의 깊을을 더욱 예리하게,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물관의 역사와 전통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회주의 사상전선의 성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이인은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전두에 놓이 모시어 반미대결전과 강성 국가건설전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우리 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속깊이 조이밖과 당의 의도대로 반제반미교양을 5대교양의 하나로 둔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피로써 반드시 갈아야 한다는 두절한 반제반미계급의 식파 주적관을 서리발총장처럼 간직하고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주를 내리는 심정으로 강성 국가건설의 전구 마디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하게 벌어지고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역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전두에 놓이 모시어 반미대

결전과 강성 국가건설전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속깊이 조이밖과 당의 의도대로 반제반미교양을 5대교양의 하나로 둔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급교양, 계급교양 실들을 잘 꾸려기 위한 사업과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계급교양 거점들에 대한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며 일군들과 당통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 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몽쳐 우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위해 한 승리의 혁사를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았다.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 새기고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군민복수결의 모임 진행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천만군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침략자들을 끌까지 치밀하고 영웅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혁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갈 철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살인귀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신천땅에 남긴 피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군민복수결의 모임이 26일 신천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인 신천박물관 사백

어머니묘, 백들어린이묘 앞은 천

인공노란 미제의 야수적 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반미최후대 결전으로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 풀고야말 복수자들의 멸적의 의지가 새차게 맥박치고 있었다. 모임장소에는 《미제살

인 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미제를 물어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훌륭한 피값을 친백배로 받아내자!》, 《페는 페로 죽어죽이고 신 사람의 머리를

풀고야마는 것을 너도도

모임에 참가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대원 속구치는 분노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세차게 끊어버리고 말하였다.

그는 침략파 탄압으로 비대해진

아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우성은 미제침략자들이 대원 속구치는 분노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세차게 끊어버리고 말하였다.

그는 침략파 탄압으로 비대해진

아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우성은 신천박물관이 미제와 계급적 원한을 풀고야마는 것을 너도도 모조리 죽어버리고 말하였다.

원한풀고 쓰러진 사백어머니와 백들어린이들의 피터는 절규와

죽어죽이고 신 사람의 머리를

로 복수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민을 들씌운 식인종무리들인 철천지원주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이땅의 한줄 흙에도 승냥이 미제를 단죄하던 수많은 인민들의 피절은 절규가 스며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 높은 알짜증산으로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주를 내리는 심정으로 강성 국가건설의 전구 마디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로복수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민을 들씌운 식인종무리들인 철천지원주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이

땅의 한줄 흙에도 승냥이 미제를

단죄하던 수많은 인민들의

피절은 절규가 스며있음을 한시

도 잊지 않고 더 높은 알짜증산

으로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주를

을 단호히 짚부셔릴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미제침략자들을

이땅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고야

말 불리는 복수심을 안고 계급

진지의 전초선에서 사는 신천동

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미제살인귀들과 물까지 싸워 영웅조선의 위대한 전통을 빛내여나갈 철의 의지가

당긴 구호들을 힘차게 외쳤다.

신천군 명석현동동장 관리원

원장 전체숙은 전승의 그늘로부터

6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기 신천땅은 치솟는

분노로 잠들지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신천땅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아직도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피비린내 나는 살륙만행의 흔적이 렉히히 남아있고 그

날의 평흔들은 원수들을 친백배



7-511169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번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뮤지컬 373-5428, 당백사교 373-5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편집위원회